

# 광주 자동차 부품업체 59% “미래차 전환 준비 부족”

## 광주인자위, 車부품산업 실태조사

경쟁 심화·자금난·정보 부족 등 이유  
‘차체·의장·시트·전자장치 업종’ 46%  
“전기차 관련 체계적 교육훈련 필요”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절반 이상은 경쟁 심화와 자금난 등의 이유로 미래차 전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130개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전환에 따른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을 협력 단계별로 살펴보면 1차 협력기업(26.9%), 2차 협력기업(44.6%), 3차 협력기업(7.7%), 4차 협력기업(2.3%)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응답기업의 71.5%가 1, 2차 협력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5%),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0.8%),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 10.0%, 10억원 미만 기업 17.7%로 나타났다.

주업종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내연차-미래차 공용군’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 분야 기타’ (23.1%), ‘미래차 전용 부품군’ (7.7%), ‘내연차 전용 부품군’ (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장 높게 나타난 ‘내연차-미래차 공용군’ (56.8%)은 ‘차체 및 의장’ (30.0%), ‘의자(시트) 및 관련부품’ (9.2%), ‘전기·전자장치’ (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차체 및 의장, 시트 및 관련부품, 전자장치 업종이 전체의 46.2%를 차지하면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력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부설연구소 보유’ (56.2%), ‘연구소는 없으나 연구전담부서 혹은 연구인력 보유’ (20.0%)로 76%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 기업 중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기업은 38.5%로 조사됐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준비와 관련, 주력업종 외에

다른 업종 혹은 영역으로의 확장을 나타내는 다각화(전환) 상황을 살펴보면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40.8%, ‘고려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59.2%로 나타났다.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각화의 수준을 살펴보면 ‘양산 및 납품 단계’ (16.0%), ‘초기탐색 단계’ (7.4%), ‘기술개발/M&A 등 기술확대 단계’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각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사유로는 ‘경쟁심화로 사업전망 불확실’ (25.9%)이 가장 높았으며, ‘자금확보 애로’ (19.0%), ‘정보부족’ (13.8%), ‘기술확보 애로’ (10.3%), ‘판로개척 애로’ (10.3%) 등의 순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필요 인력은 15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직무별로 보면 ‘연구개발’ (36.7%), ‘생산’ (31.0%), ‘시험평가 및 품질’ (17.8%) 등으로 나타났다.

필요 인력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급여 등 지원자들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어려움’ (33.8%),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 어려움’ (33.1%), ‘지

원자 수의 부족’ (18.5%), ‘이직 및 퇴직으로 인한 기존 인력의 유출’ (10.8%)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접법)를 실시한 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신입 및 기존 직원들의 경우는 전기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의 부족, 연구개발 인력들의 경우는 전기차와 관련된 신기술 및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후형 광주인자위 사무처장은 “2025년 정기 과정으로 4개의 전기차 훈련과정을 개설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해 광주지역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 중 대기업이 아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했으며, 설문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부품 관련 코드 40개(기존 자동차 부품업 9개, 미래차 관련부품업 31개 추가)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 표본 130개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광주신세계, 봄·여름시즌 의류 신상품 선배

### 전체 의류 중 40% 구성

광주신세계가 입춘(2월3일)을 앞두고 올해 SS 상품을 준비해 고객맞이에 나선다.

30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입춘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체 의류 중 약 40%를 SS시즌 신상품으로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디스이즈네버댓’, ‘살로몬’ 등 35개 신규 브랜드를 선보이며 20~30대 방문이 크게 증가하는 등 MZ고객의 핫플로 거듭난 플레이 스팟(구 신관)은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을 SS 신상품으로 채웠다.

이 중에서도 ‘데상트’는 전체 품목 중 약 80%를 SS 시즌 신상품으로 준비하고 고객들을 맞이한다. 여러 신제품 중 고객 반응이 좋은 품목은 턴즈 백팩이다. 블랙과 화이트, 스카이 블루 등 3가지 컬러로 출시된 턴즈 백팩은 가방 전면부에 부착된 버클을 이용해 수납공간 확장이 가능하다.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지만 가격은 16만원대로 합리적이다. 데상트는 턴즈 가방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멀티백 증정 행사를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한다.

‘뉴발란스’ 역시 전체 품목 중 약 70%를 25년 SS 시즌 신상품으로 채웠다. 의류와 가방 등 다양한 품목 중 고객들로부



광주신세계가 입춘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체 의류 중 약 40%를 SS시즌 신상품으로 마련하며 고객맞이에 나섰다.

광주신세계 제공

터 가장 큰 관심을 얻고 있는 품목은 뉴발란스의 최상급 플래그십 러닝화인 퓨어셀 SC 엘리트 V4다. 퓨어셀 SC 엘리트 V4는 간단한 러닝을 넘어 마라톤 풀코스까지 소화할 수 있는 최상급 모델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다보니 퓨어셀 SC 엘리트 V4를 구입하려고 광주신세계 뉴발란스 매장을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가격은 31만원대이다.

같은 층의 ‘마리떼프랑소와저버’는 여성용 니트집업 상하의 세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패딩 조끼 등을 겹쳐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포근한 날씨에는 별도 외투 없이 입을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연출이 가능하다. 광주신세계 마리떼프랑소와저버는 가성비를 생각하는 고객들을 위해 겨울용 일부 제품들을 오는 3월 3일까지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나다운 기자

## 광주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20억 특별출연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419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며, 광주시는 1년간 3~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내 도·소매, 음식



업 등 58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7년 이내로 광주시내 광주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소상공인을 위해 총 7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1743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불

어넣었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광주신용보증재단, iM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호남 최초의 보증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시 1급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현대 아이오닉·넥슨 카트라이더 ‘콜라보’

### 내달까지 아이오닉9·6 카트 제공

현대자동차가 오는 2월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를 선보인다.

아이오닉 9는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특징을 바탕으로 게임 속에서 아이템 카트로 공개된다. 또 뛰어난

난 공력 성능을 갖춘 아이오닉 6도 스피드 카트로 출시돼 더욱 짜릿한 모바일 레이싱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2월27일까지 게임 내 이벤트를 통해 아이오닉 9과 아이오닉 6 카트를 획득할 수 있고, 별도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콜라보레이션 기념 프로모션에 참여해 블루투스 이어폰,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뿐만 아니라 현대 모터 스튜디오 전시 체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게임 속에서 아이오닉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오닉 브랜드의 우수성을 젊은 세대에게 알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 제네시스, ‘GV60 험로주행 콘셉트’ 최초 공개

제네시스가 험지에서 운행이 가능한 다목적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주행 및 안전 기술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

제네시스는 현지시간 20일부터 24일까지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 호텔에서 ‘GV60 다목적 험로주행 콘셉트(GV60 Mountain Intervention Vehicle Concept)’를 전시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글로벌 최초 공개되는 ‘GV60 다목적 험로주행 콘셉트’는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정찰 및 구조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로, 탑승자의 안전과 임무 수행을 위한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이번 콘셉트는 전기차인 GV60 양산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며, 고성능 전기모터를 활용해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갖췄다. 이와 함께 V2L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에 장착된 구조 장비에도 전

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눈길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무한계도형 바퀴를 장착해 다양한 험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탑승자의 고정을 위한 스포츠 시트 △긴급 통신 시스템 △의료용품 등이 내장돼 극한 상황에서 정찰 및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장비용 루프랙과 모듈러 방식의 해치백을 탑재해 최대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장비를 장착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량의 활용 폭을 넓혔다.

휠하우스에는 탄소 섬유로 제작된 대형 펜더 플레어가 장착돼 충격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무한계도형 바퀴를 비롯한 차량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박소영 기자

